

#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 없다…일본·호주·한국도 마찬가지”

“나토 대부분 대이란 작전 관여 않고 싶다 통보…누구 도움도 필요 없다”

‘호르무즈 연합’ 구상 호응 않는 동맹에 불만 표출…구상 변화 여부 주목

대(對)이란 전쟁 과정에서 전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하며 동맹을 강하게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지원도 필요 없다고 했다. 선뜻 지원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국에 분노와 좌절감을 표한 것인데 다국적으로 ‘호르무즈 연합’을 구성하겠다는 구상에도 변화가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이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달러를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

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며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하건대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를 위해 군함 파견 등으로 협조하라는 요구에 동맹들이 응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해석된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이 참여 의사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고 다른 국가들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게시물에서도 매년 수천억달러를 들여 나토 회원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거론한 점으로 볼 때 동맹국들이 보답 차원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일정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토와 일본, 호주, 한국을 차례차례 거론하며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한 점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연합’ 구상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동맹국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마당에 더욱 강력하게 호르무즈 연합 구성을 밀어붙이기보다 다른 방식의 지원 제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들(동맹국)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은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불타오르는 두바이 공항 16일(현지시간) 두바이 국제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가 치솟는 가운데 에미레이트 항공기가 착륙을 준비하고 있다. 공항 운영사는 이란의 걸프 지역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근 연료 탱크에서 발생한 ‘드론 관련 사건’으로 인한 화재 이후 항공편 운행이 점차 재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현재 세계 최대 국제선 공항으로 손꼽혔다. /AFP=연합뉴스

## 북중미 월드컵, 유튜브로 본다…FIFA 공식 파트너십 선정

매 경기 초반 10분 실시간 생중계

오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의 일부 경기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는 이번 월드컵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식 선호 플랫폼’으로 선정됐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월드컵의 공식 미디어 파트너사(중계권사)들은 대회 사상 최초로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경기의 초반 10분을 실시간 생중계할 수 있게 됐다. 일부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전체의 생중계 옵션도 제공된다. 중계권사들은 또 하이라이트, 비하인드 영상,

짧은 동영상인 ‘쇼츠’, 다시보기(VOD) 등 모든 형식의 영상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 화를 할 수 있다.

FIFA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월드컵 경기 영상과 역사적 순간이 담긴 ‘디지털 아카이브’도 공개한다.

주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 경기장 안팎을 취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리액션 영상과 전술 분석, 현장 비하인드 등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마티아스 그레프스트림 FIFA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전 세계 팬들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튜브와의 협력은 급변하는 미

디어 환경 속에서 대회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우리의 포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스틴 코놀리 유튜브 미디어·스포츠글로벌 총괄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차세대 팬들을 월드컵의 세계로 이끄는 동시에 주요 순간마다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유튜브의 저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의 재무 관련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튜브는 앞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후원사로 FIFA와 협력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경기장면의 중계 관련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이란 혁명수비대, 바시즈 민병대 총지휘관 사망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바시즈 민병대 총지휘관 골람레자 솔레이마니의 사망을 확인했다.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매체인 세파 뉴스는 17일(현지시간) “바시즈 민병대의 수장인 골람레자 솔레이마니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순교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전날 밤 폭격으로 이란의 안보 수장 격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이란 당국은 라리자니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바시즈 민병대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산하 조직으로 이란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체제의 축수’로 불린다.

시위 진압, 내부 정보 수집과 감시는 물론 종교 경찰 역할까지 하는 준공권력이며 전시에 혁명수비대를 보조하는 예비군 임무도 수행한다. 경제난으로 촉발된 최근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도 바시즈 민병대원들이 시위대를 유혈 진압했다. /연합뉴스

## 中 ‘흔적없이 논문 철회’ 업체 등장

중국 학계의 연구 부정 단속이 강화되면서 흔적 없이 논문을 철회해주는 업체가 등장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중국 매체 신화매일전신은 18일 보도에서 중국 내 일부 중개업체가 논문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 내부 경로를 통해 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논문을 철회한 후 학술지 목차를 조작 가능하

고 이야기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논문이 발표되면 즈왕(知網·CNKI)이나 완방(万方), 웨이푸(維普·CQVIP) 등 데이터 플랫폼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 이런 논문을 비공식적으로 철회해준다는 것이다.

매체는 “과거 대필·대리투고나 자료 짜깁기 등 방식으로 논문을 발표했던 사람이 학술 부정행위 단속이 지속 추진되자 ‘폭탄 폭발’을 우려하게 됐고, 여기에서 ‘흔적 없는 논문 철회’라는 난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과거 누누이 비판된 ‘돈 내고 논문 발표’부터 현재의 ‘돈 내고 흔적 없이 논문 철회’까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평가 체계와 실제 생산력 간의 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위험한 것은 ‘흔적 없는 논문 철회’가 개인의 신용 상실로 인한 대가를 공동체의 비용으로 전가한다는 점”이라며 “문제가 있는 논문의 추적이 어려워지고, 신뢰 상실의 규모를 평가하기 어렵게 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